축산선진국으로 역수출되는 중형베일러

농가 입소문타고 옥수수용 자주식베일러도 인기

국내 최초로 원형베일러를 도입해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 등에 도움을 주는 한편,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중형 원형베일러 국산화에 성공한데 이어,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일본에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고, 현재는 중국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농축산기기 전문제조업체 (주)명성에 농가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리 농축산현장에 최적화된 중형 원형베일러

"명성 것 쓰는데 좋아요. 차체가 높아 빠지는 논도 무리 없습니다. 압은 중형 중에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칼날 세 개 넣고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픽업부에 볏짚 걸리면 안전나사 갈고 드롭바 내리면 따로 처리할 게 없습니다. 볏짚 호밀 풀 작업 다 가능합니다."

'농기계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농가 카페에 가면 이런 댓글들이 많다. 어떤 베일러를 구입해야 좋을 지 의견을 묻기라도 할라치면 '써보니 좋다, 압이 최고다, 전천후다, A/S하면 명성'이라는 댓글들이 달린다. 명성의 중형 원형베일러가 '써보니 좋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우리 농축산업에 맞게 100% 국산 기술력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농림수산식품부 우수기술 선정 등의 수식어가 붙기 전에도 이미 명성의 중형 원형베일러(RB1000DF)는 월등한 기술력으로 타사 제품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 제품은 동급 최초로 1,800mm의 대형 작업폭을 적용했고 바닥판 내림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일체형 커팅시스템으로 막힘 발생이 적을 뿐 아니라 고압축용 스틸롤러와 고강도 체인을 장착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외부 디자인은 내구성을 고려한 고강도 강화 프라스틱을 사용하여 무게를 경량화 하는 동시에 원터치형 개폐방식으로 전환, 빠른 사후서비스를 위한 유지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됐다.

깐깐한 베일러시장,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명성의 기술력

명성의 이러한 자신감 뒤에는 탄탄한 기술력이 있다. 이인현 대표는 20년 전 국내

사각베일러 시장에 유럽형 원형베일러를 최초로 도입해 판매해 오다, 2007년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중형 원형베일러의 국산화 성공했다. 국내실정에 적합한 최고의 베일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 제품을 개선해 나갔고 마침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을 만큼 성장을 거듭했다. 특히 일본 시장의 경우 까다롭기로 소문난 데다, '스타'와 '타까끼타'라는 대형 농기계회사 제품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일본 시장에 베일러를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보다 강하고 성능이 뛰어나다', '부품 역시 모두 국산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명성의 성공에는 '자체 기술력'을 중시하는 이인현 대표의 경영철학이 숨어있다. 실제로 연구인력이 전체 인력의 10%를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인현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을 그 정도로 고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성은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으로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작년에 실시한 제8회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 i-BIO제품(아래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인현사장과 이한범이사

▲ (주)명성이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는 중형베일러

▲ 옥수수작업에 최적화된 자주식베일러(HV 1800)

받았으며 농식품부장관상 3회(1998, 2000,2010년)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2006년), 경기도지사표창(2013년)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ISO 9001인증업체, 이노비즈 인증업체, 조달청 계약업체, 농협계통 계약업체, 정부융자, 보조사업 대상기종 선정 등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두루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베일러와 랩피복, 옥수수사일리지 작업을 하나로 'i-BIO'

명성에서 현재 주력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i-BIO' 복합기다. 명성 기술력의 집합체인 원형 중형베일러에 랩피복기와 옥수수사일리지 작업까지 가능한 일체형 제품으로 트랙터 한 대로 베일작업과 랩핑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인력절감에 효과적이다. 봄, 가을에는 원형베일러, 랩피복기로 조사료를 생산하고 여름엔 옥수수사일리지를 제조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랩핑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랩핑을 하지 않고 베일만 배출할 수도 있다.

또한 올해 선보인 자주식베일러(HV1800)는 기존의 제품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으로 옥수수작업에 최적화됐다. 자주식베일러가 마치 공룡처럼 빠르고 견고하게 작업하는 유튜브 동영상도 이미 농가들 사이에서 화제다. 자주식베일러는 옥수수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고속작업이 가능하고, 대형 호퍼를 장착해 네트 결속 중에도 연속작업이 가능한 논스톱시스템으로, 일일작업 효율이 월등하다. 이와 함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습지작업 조건에서도 우수성을 입증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주)명성은 올해 4월 중국의 '쌍가 농장비' 유한회사와 MOU를 체결했다.

▼중국장춘에서 중형 원형베일러를 테스트하고 있다.

'수출 원년'으로 삼고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

명성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통하는 탄탄한 기술력을 앞세워 수출전선에 뛰어들었다. 유럽의 CE 인증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셈. 세계적인 랩피복기 회사 '핀란드 ELHO'가 유럽시장에 명성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테스트 중에 있고 터키에서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제품의 수요는 많지만 '엔저'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일본회사에 위탁 판매하고 있다.

명성이 주목하는 시장은 바로 중국이다. 사각베일러에서 원형베일러로 교체하려는 수요도 많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명성은 중국 농기계 전시회에 직접 제품을 출품하고, 중국어판 카탈로그와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현지에 제품조립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인현 대표가 중국시장에 조립공장을 세우며 직접적으로 공략하려는 이유는 '중국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한다. 제품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 일반 농가들이 쉽게 구매할 수 없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현지에 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중국의 활발한 시장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농기계에 지원되던 정부보조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FTA으로 국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축산분야의 기계화율은 아직도 4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농업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인현 대표는 "30년 세월동안 오직 농축산작업기계의 첨단화라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농축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